



“그들이 강한 이유는”

모빌리언스 인프라기술팀

IT 발전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줌과 동시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 형태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은 매출액과 종업원 수의 관계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한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그 답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정보보호라고 외치는 곳이 있다. 바로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로 잘 알려진 모빌리언스가 그들이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누구나 한번씩 이용해 봤을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기에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휴대폰 결제 서비스가 처음 등장한 것이 지난 2000년이며, 온라인 사용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불과 5~6년전 일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생소했던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모빌리언스다.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꼭 필요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모빌리언스가 만들어낸 셈이다.

금융 서비스만큼 중요한 결제 서비스

모빌리언스의 전체 직원은 약 70여명.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 회사가 보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때문이다.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24시간 365일 장애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안성과 가용성이 모두 필요한 서비스가 바로 결제 서비스죠.” 모빌리언스 인프라기술팀 신춘일 부장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모빌리언스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는 최근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와 서비스 가용성이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결제 서비스 과정에서 기록되는 결제 데이터만으로도 사용자의 생활패턴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서비스는 곧 민감한 프라이버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모빌리언스의 고객은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라는 신 부장은 그런 의미에서 지난 4년은 보안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설명한다. 2004년 비즈니스를 위한 IT 인프라가 충족된 이후 모빌리언스는 DB접근제어, USB와 같은 이동매체에 대한 접근제어 솔루션, 문서보안 솔루션을 도입해 전사적인 암호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물론 정보보호 활동이 보안 솔루션 도입으로만 그친 것은 아니다. 이후 정보보호 지침과 절차를 정리하고 업무 프로세스로 보안영역을 확대해 소스관리부터 배포까지 일련의 과정에 보안요소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었다.

“목표를 높게, 그리고 노력하자”

이렇게 1차적으로 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인프라기술팀은 2008년 이에 대한 검증작업을 시작했다. 바로 ISMS 인증획득이 그것이다. “지난해 KISA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준비하면서 보안 수준을 의도적으로 높게 잡았어요. 보안수준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현실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 거죠. 물론 초기에는 기준에 미흡한 요소도 발견되기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목표치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어요.” 신 부장은 ISMS 인증 획득은 전사적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회사 전체 직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이행이나 전 파교육은 매우 잘 이뤄지고 있어요. ISMS 인증 획득에는 사내 직원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모빌리언스 인프라기술팀 김택현 대리도 사내 직원들의 협조가 ISMS 인증획득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2008년 한해 정보보호 컨설팅과 인증획득으로 바쁜 시간을 보낸 인프라기술팀이지만 정작 이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2008년까지 보안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졌지만 투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2009년은 업무 프로세스에 보안이 제대로 정착됐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기라고 봐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죠.” 신 부장은 그런 의미에서 모빌리언스의 보안수준은 2009년에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전체 직원의 규모가 70여명인 모빌리언스에게 정보보호에 대한 적지 않은 투자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하지만 여기에 대해 신 부장은 자신의 소신을 명쾌하게 밝힌다. “정보보호 담당자로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인원과 투자가 부족하더라도, 동기부여된 보안 담당자만 있다면 기업 정보보호 수준은 강화될 수 있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 구성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시각은 기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 때문에, 혹은 CEO의 마인드 때문에 정보보호를 잘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보안 담당자들도 적지 않다. 물론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전사적인 지원은 정보보호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빌리언스 인프라기술팀의 보안활동과 조언은 정보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다. **S**

“정보보호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보호 담당자 스스로가 보안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봐요.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동기부여가 확실한 보안 담당자만 있다면 기업의 정보보호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모빌리언스 인프라기술팀 신춘일 부장은 기업 정보보호 수준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보안 담당자의 존재라고 강조한다.

